

강진군, 건강한 미래 위해 보건사업 중점 추진

‘워크온 건강걷기’ 상품권 지급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임신·출산 검진비 등 지원 확대
전 군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도

강진군이 군민의 건강한 미래를 향해 70억원 규모 70여종의 보건사업 시행에 나섰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어르신을 위한 세심한 복지 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대응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중 하나는 ‘워크온 건강걷기’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60세 이하 목표달성자 중에서 30%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19세 이상 모든 군민이 25일간 20만보를 달성하

면 전원에게 1만원권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된다.

건강 미션을 달성한 어르신에게는 월 5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기술 기반 건강관리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임신 준비 중인 군민에게 제공되던 사전건강관리 검진비 지원은 기존 1회(여성 13만원·남성 5만원)에서 3회로 확대된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연령 제한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여성 1인당 25회→출산당 25회)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 냉동 시술, 정관·난관 복원 시술 추가 지원도 제공되며 복원 시술 본인 부담금은 정관 최대 50만원, 난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 치료 및 예방 정책도 개선된다. 기존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실 운영에 더해 치매약제비 지원대상이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본인 부담금 상한은 3만원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진군보건소는 이 외에도 전 군민 대상 무료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 등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긴급의료비·통역 배치 등

해남군은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의료비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해외근로자를 5~8개월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1137명을 배정받은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입출국 및 농가 배치시 행정처리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농촌현장에서 치료비 문제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농업법인)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인당 21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고용 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설 맞이 특별 할인 기획전
신안 1004몰, 24일까지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안군의 대표 농수특산물을 설 명절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30% 할인 쿠폰을 회원 1인당 3매씩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설 명절 선물 준비로 바쁜 고객을 위해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쿠폰도 지급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신안 천일염 선물세트, 섬 시금치, 홍어, 유기농 쌀 등이 있으며 농수특산물,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할인 쿠폰 행사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해 명절 대목 물가 상승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1004몰에서는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적립금 1000원과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2025 리뷰 이벤트’도 병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신안1004몰 설맞이 기획전으로 농가 매출 향상 및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해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청정지역 신안군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특산물로 고마운 이들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무안군, 31일까지

무안군은 경유차에 대해 매년 연 2회(3·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로,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061-450-5564~5)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정기분(3·9월) 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안=김행연 기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관광객 편의 ↑

신안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저녁 시간 및 주말 영업하는 음식점이 없음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조례를 통해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심야 당번 음식점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난 13일 무안군 몽탄면 새마을협의회원들이 통행량이 많은 몽탄면 파군교 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몽탄면 새마을협의회, 파군교 저수지 일원 환경정화

무안군 몽탄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3일 통행량이 많은 몽탄면 파군교 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4일 몽탄면 새마을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새마을지도자 40여명은 파군교 일원에서 낚은 새마을기를 교체하고 방치

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박신배 새마을협의회장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마을협의회 의 깃발을 교체했다”며 “몽탄면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군, 이사 비용·중개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영암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영암군에 전입한 가구에 이사비는 100만원, 중개수수료는 40만원 한도로 50%의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지난해 영암군이 첫 시행한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지난해 7월 이

후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고 다자녀 가구는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및 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미영암군인구청년

과장은 “이사 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영암군으로 이사 온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 안정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